

국가별 통근시간 비교

국가별 교통여건 및 토지이용 특성은 다양하며 전반적인 통행시간 및 부문별 통행시간에 영향을 준다.

국가경쟁력 지표의 하나로 접근성을 고려할 때 통행시간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¹⁾이란 통행발생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물리적 거리, 통행시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2016년 31호 DB Trend에서는 통행시간 중 국가별 통근시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자료: 1) 다음사전

국가별 통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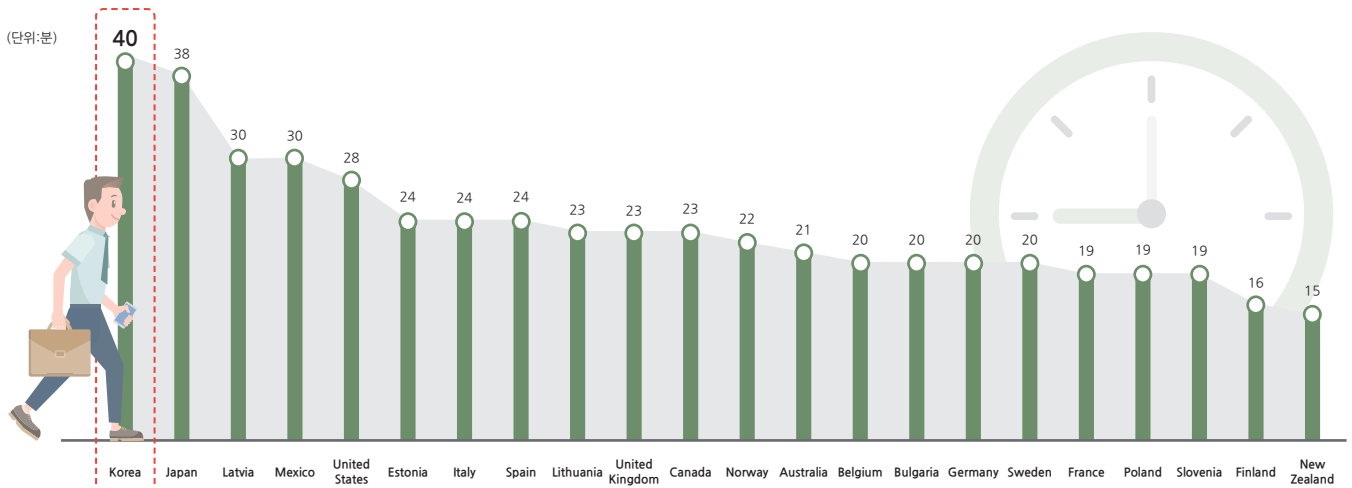
- 국가별 기준 년도가 상이하나 국가 전체에 대한 통행 시간은 통행관련 수요와 공급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결과를 비교해보면 조사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40분, 일본 38분으로 통근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핀란드 16분, 뉴질랜드 15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기준년도: 프랑스(1999),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2000),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2001), 독일, 멕시코(2002),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2003), 대한민국, 폴란드(2004), 캐나다(2005), 호주,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2006)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

주 1: 개별 국가의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의 요일평균 기준 시간이며, 모든 조사응답자대상으로 함

주 2: 조사 대상국가별 조사연령대와 행동 분류체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활용시 유의 필요함



*조사응답자 전체 연령대는 국가별로 다음에 유의(국가별 10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기준 적용, 대한민국 10세 이상 기준)

우리나라 통근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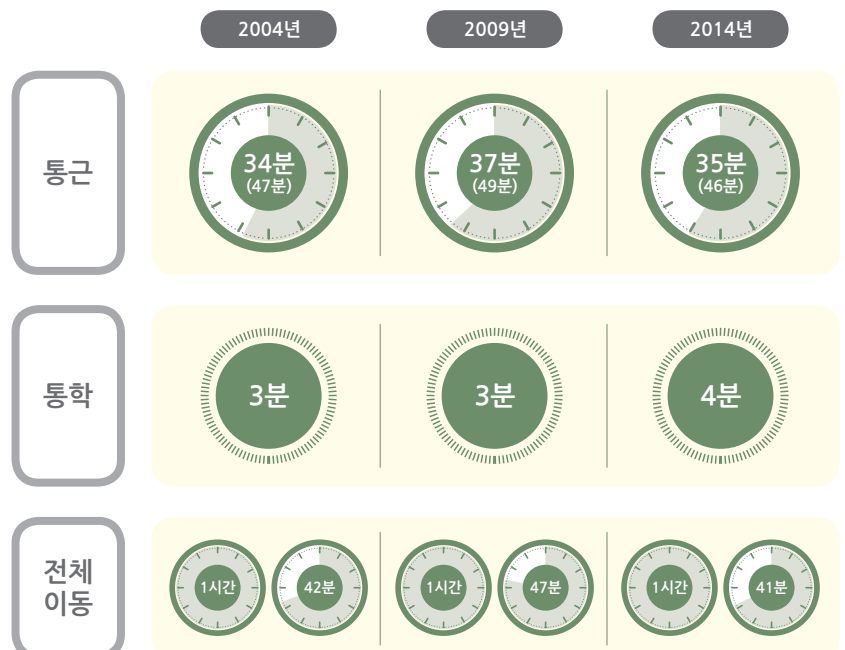
- OECD에서 비교한 국가별 통근시간 중 우리나라의 최근 통근시간 비교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비교대상 연령기준에 따라 통근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함
 - > 연령대 구분상 20세 이상 적용
 - > 요일평균 적용
- 2004년~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중 이동 관련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 통근시간이 증가한 후 2014년 감소하였으며 2004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이동과 관련된 시간이 큰 변화없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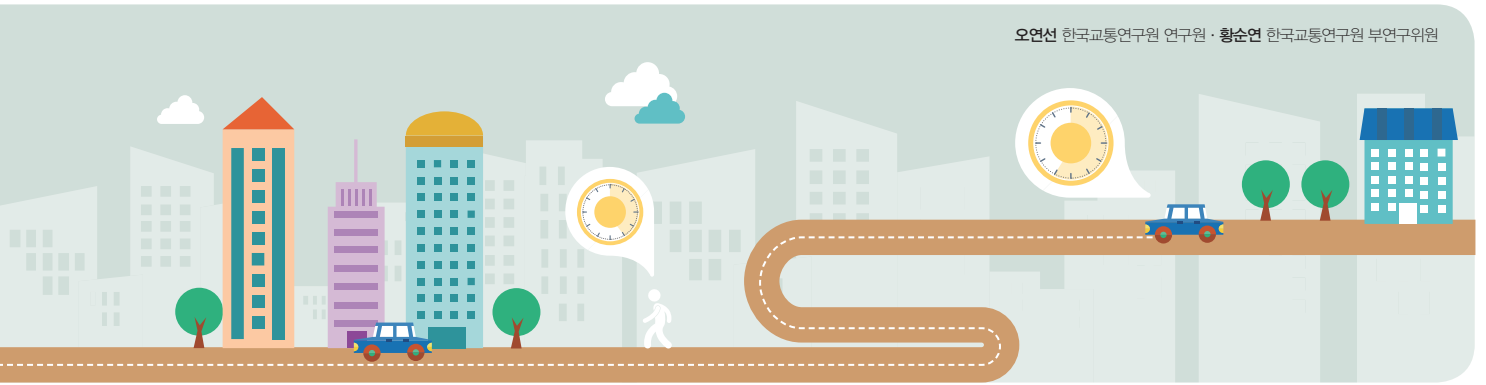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연령대별 평균시간, 각년도(www.kosis.kr)

주 1: 통근 중()는 일 관련 이동시간 포함

주 2: 전체 평균시간 기준 - 특정한 행동에 사용된 시간을 합한 후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누어 산출평균한 결과로 전체 국민의 24시간 이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함

[참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근통학시간이, 국가교통조사(가구통행실태조사)에는 통행목적별(통근, 통학 외) 통행시간이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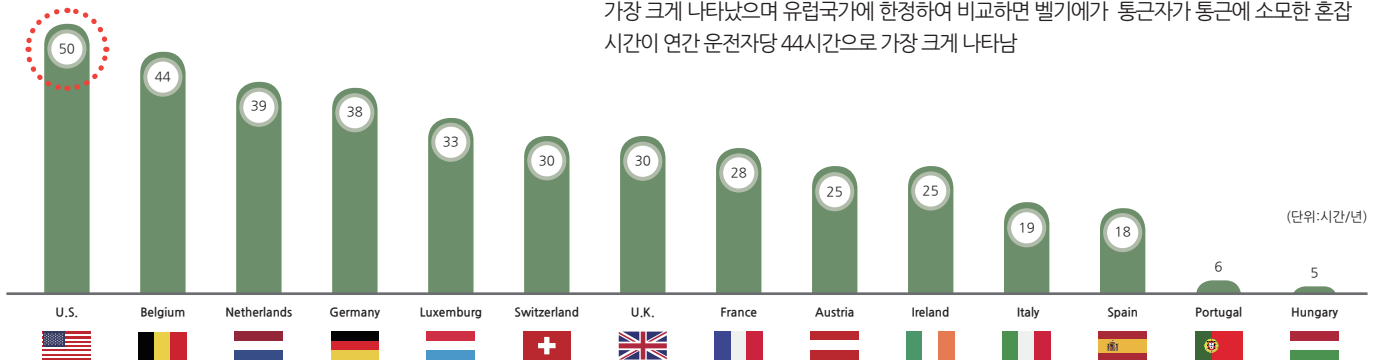
도시별 통근시간 혼잡시간 비교

INRIX 교통 데이터 아카이브에 구축된 빅데이터를 근거로 미국, 유럽 국가, 일부 아시아 국가의 대도시에 대한 통행을 비교한 자료로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속도 자료를 토대로 통행시간을 계산하여 월별 연도별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일정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집계하여 도로구간에 대한 속도 및 혼잡도를 분석함

출처: INRIX 2015 Traffic Scorecard Infographics (<http://inrix.com>)
주) INRIX 2015 교통 스코어카드 분석결과 상위권 순위에 한하여 비교

<국가별 비교>

미국을 포함한 경우, 미국이 통근자가 통근에 소모한 혼잡시간이 연간 운전자당 50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유럽국가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벨기에가 통근자가 통근에 소모한 혼잡시간이 연간 운전자당 44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도시별 비교>

• 미국 도시별 비교: 미국 LA가 통근자가 통근에 소모한 혼잡시간이 연간 운전자당 81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호놀룰루가 49시간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 유럽국가 도시별 비교: 영국 런던이 통근자가 통근에 소모한 혼잡시간이 연간 운전자당 101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프랑스 파리가 45시간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